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승리떨쳐온 격동의 한해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사상혁명의 도전과 격난을 뚫고헤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역세게 달려온 지난날과 달들을 되새겨보고 있다.

과연 그 무엇이 공화국인민들이 형성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आरो세하게 하였는가.

공화국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

세찬 폭풍 몰아쳐도 흔들림 없고
우리 세대 바뀌어도 변함없으리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당을 따르는 오직 한길에 아영원하리

그렇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조선에만 있는 특유의 참모습, 공화국의 백승의 무기 일심단결에 세인이 그처럼 경탄하는 사변적승리의 밑뿌리가 있다.

지금도 격추의 촉포탄들이 연이어 터져올라 황홀하게 뿌려지며 일심단결을 펼치었던 9월의 그 밤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밤하늘가를 람홍색으로 물들이던 항공폭전병의 기백있는 강하기고,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장쾌한 폭음속에 펼친 능란한 기교비행, 노래 《우리의 국가》의 숨겨진 신록속에 펴낸 나뭇기린 찬란한 공화국기, 아름답고 회한한 축로야경, 로동당시대의 대가 넘비로 거언히 서있는 민수국의 사당을 배경으로 성황리에 진행된 대공연...

공화국창건 74돐을 맞는 환희로운 그 밤 태양같이 환한 신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리러 행사참가자들, 아니 TV로 행사를 지켜본 온 나라 인민이 러치던 열렬한 박수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평과 인민이 하나로 뭉친 혼연일체의 빛나는 화폭이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찬만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혈연

의 정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쳐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해온 격동의 해였다.

새해 정초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는데 이어 수많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을 지도하시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흥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제2차 초공당비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당으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를마다 언제나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고 백승의 원천으로 되어온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위대한 새 승리를 안아오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 불변의 의지를 다시금 철갑하게 한 력사의 순간들이었다.

세상이 뒤바뀌고 천지가 흔들리는데 언제나 자신의 살붙이와도 같은 인민을 굳게 민수국의 회황한 레일의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온한해 희생적인 위민헌신의 자욱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공화국인민들은 이 땅에 얼마나 눈부신 기적들을 펼쳐놓았는가. 2월의 봄 하늘가를 뒤흘들며 울려 퍼진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과 편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의 발파폭음에 이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건설목회 사상의 정당성과 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휘황한 레일을 향해 활기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힘있게 실체된 승화거리 준공식과 수도 중심부의 유서지인 명당자리에 행복의 별천지로 솟아오른 보통강강안타락적주래주 준공식, 경사로운 10월의 명철을 맞으며 행행던 편포온실농장 준공식과 한남방에 펼쳐진 농기계바다, 곳곳의 농촌지역들에 펼쳐지는 새집들이경사...

하나하나 꼽아볼수록 더없는 긍지와 환희로 가슴을 높여게 하는 자력번영의 창조물들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정녕 잊지 못하고있다. 환풍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찾으신 지난 3월 현충적인 1만세대의 살림집을 짧은 기간내에 우리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주체적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공

지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음성.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공화국특유의 불가항력으로 이 땅에 이룩된 기적적 승리는 그뿐이 아니다.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능는 방역전쟁으로 흘러온 지난 5월의 잊지 못할 그 날날 우리에게는 당과 정부, 인민이 일심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그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굳게 굳게 확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영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시며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방역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

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시었으며 수도의 약국들을 찾으시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하늘도 감복할 그 사랑을 불사약으로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이 일떠서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를 울렸다. 공장들과 전야마다에서, 이 땅 그 어디에서 하나도 전진의 동음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위대한 당중앙의 함도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악성병역과 방역전쟁을 성공적으로 평정하고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하던 그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적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와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라고.

진정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진함을 모르는 사람과 믿음이 있었기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은 더욱 백배해지고 이 땅 그 어디에서나 그 위대한 힘이 안아온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졌다.

행복의 별천지 경류동에 가보아도,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특색있는 대건축군을 이룬 송화거리에 가보아도, 서해의 곡창지대 황남방에 가보아도, 나라의 공업도시, 과학도시가 자리잡은 함남방에 가보아도, 이 땅 그 어디에 가보아도 누구나 한복소리로 웨친다.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경애하는 원수님만 따르겠다고.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다고 하시며 온 한해 이 나라의 천만식식의 생명안전과 행복추진에 온갖 심혈과 노력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 경애하는 원수님을 찬양을 다해 따르고 받드는 인민의 일심단결로 뜻깊은 2022년 이 하루하루 흘러다.

지금도 김일성광장에 서면 우리 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 참석하시게서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은 영원하며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간다는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새로운 진군의 모풍을 더욱 힘있게 내걸으며 이 땅 위에 거머져 세계가 우리르는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라익을 일떠세울것이다.

나이든데 공헌한 공로자, 로력혁신자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행사참가자들과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참가자들과 최대비상방역전선의 승리에 공헌한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격에 넘친 모습도 세인의 맘에 또렷이 새겨져있다. 그 환호, 그 모습은 절세위인의 두리에 찬만이 굳게 뭉쳐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환호성, 위대한 혼연일체의 화폭이다.

수평과 인민이 사상과 뜻, 혈연의 정과 의리로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 당이 벽을 울리던 찬만인민이 산악같이 들고일어나 감산을 울리는 혼연일체의 기상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이다.

하기에 세인은 격정에 넘쳐 토로하고있다.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조선이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해올수 있는 비결은 사회의 공고한 단결에 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수호해나가는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떠받드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2022년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이 나라 찬만심장에 더 깊이 뿌리내린 신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은 영원하며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간다는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새로운 진군의 모풍을 더욱 힘있게 내걸으며 이 땅 위에 거머져 세계가 우리르는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라익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연세나 인민을 첫자리의 놓이시키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이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주체62(1973)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모란봉에 오르시어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시다가 함께 온 일군들에게 남산재를 가리키시며 저기에 무슨 건물을 앉혔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러나 어느 일군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것은 남산재가 아버지수령님께서 평양시 복구건설계획도작성사업을 지도해주실 때에도 공지로 남겨두도록 하시며 오래동안 아껴오신 자리였기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남산재앞으로는 김일성광장이 꾸러지고 그 주변에 그코각은 건물들이 킨뽕뽕하며 일떠섰으나 그만큼은 여전히 공지로 남아있었다. 어느날인가 한 설계인민이 그 좋은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것이 아쉽게 생각되어 저기에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청사를 앉힐 안을 만들어올린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수령님께서 설계안을 론의에 붙여보지도 않았신채 부결하시였다. 쉽게 대답을 못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심광장에는 박물관이나 회관, 도서관, 문화전당과 같은 인민을 위한 건물을 앉혀야 한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건물! 그때로부터 두달후인 그해 12월 몸소 남산재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는 이미 인민문화전당도 있고 학생소년전당도 있었으니 여기에는 도서관을 하나 크게 짓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이곳에는 조선식으로 된, 교정미가 넘쳐나도 웅장화려한 현

대적인 대도서관이 일떠서게 되었다. 대도서관의 이름을 김일성도서관으로 짓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도서관의 이름을 친히 《인민대학습당》으로 지어주시었으며 이 이름은 누구도 절대로 고치지던 안된다고 하시였다. 평양의 남산재에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은 인민을 가장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내세우는 공화국의 실상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이어가시였다. 수십년전 보통문에서 평양역에 이르러는 창랑거리를 건설하던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다가 덩치가 큰 어느한 병공식고층살림집위에 삐죽삐죽 솟은 콩크리트기둥을 보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무엇을 지으러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리고 800대라고 대답올리자 장군님께서는 한세대에 아이들이 세명씩 있는것으로 보아도 2 000명씩 넘을것이라고, 그런데 집위대도 차고도 있으면 그 술한 아이들은 어디서 놀라는것인가고 준철히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 아이들의 놀이터를 꾸려주어야겠다고 라일리주시였다. 한 일군이 살림집과 차고사이의 공간에 놀이터를 꾸리려던 어떨겠는가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새로운 기둥들을 뽑아버리기가 아쉬워 그러는가고 되물으시며 저 콩크리트 기둥들은 구성해서 차고의 천정하에 더 떠받들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어린이들은 온 조국을 떠받들게 될 나라의 기둥감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꾸려줄때에는 온전하게 꾸려주어야 한다고, 이것저것 생각할것 없이 콩크리트기둥들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마당도 넓게 닦아주고 늙은이들이 소풍할수

계 간단한 휴식장소도 꾸려주자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차고대신에 꾸러진 아이들의 놀이터. 그이의 마음 첫자리에는 항상 인민이라는 존재가 확 차지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천품으로 이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지속적인 무더위로 세계의 맑은 나라 사람들이 피서지를 찾아다니던 주체107(2018)년 7월중순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에 자리잡고있는 어느한 인민군부대 비행장을 찾으시였다.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부대에 모신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그이께서 이제 긴급명령을 주실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껏 긴장된 표정으로 서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대지휘관들에게 다정히 웃으시며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온것은 동무들에게 과업을 주시고 온것이 아니라 행복복도인민들에게 남새온실을 지어주자고 왔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무연히 펼쳐진 비행장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둘러서있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라고 하시면서 지도를 보시며 위치를 확인하시였다. 눈부러 아득히 펼쳐진 비행장을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합복복도인민들의 남새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다는 끝없는 기쁨이 출렁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온갖 피로를 잊으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후 이곳에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중형농산물창이 일떠서게 되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훌륭한 자리에 있는 언제나 인민이. 바로 여기에 공화국에서 인민이 차지하는 지위와 위상이 비껴있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인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놓이 모시어 공화국인민은 오늘날 가장 존엄높은 인민, 부패는 인민으로 되고있으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더욱더 휘황한 레일을 앞당겨오고있다.

수평

머칠건 나는 보통강기슭의 아름다운 구슬다락에 보금자리 편 행복의 주인공들을 취재하기 위해 한 로동자부부의 집을 찾았다. 그의 집에 들어서니 흥겨운 가족오락회가 한창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마을에서 자랑했으랴 수령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잡아주시며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승용차도 양벌도 로동자 다음에 있다고. 로동자의 이름은 수령님 계시어 빛나는 내 조국의 자랑 로동자의 삶은 수령님과 떨어지선 순간도 뜻사는 운명이어서 ... 저도 모르게 오락회에 침투된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닌다는 그 집 아들이 출고있는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를 들으며 가슴속이 찢어질것을 알겠수 없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 대학에 다닐 때에도 그렇고 기차생활을 하는 지금에 와서도 한생 로동자로 살아온 아버지를 추억하며 감회깊이 읊조는 하던 이 시를 여기서 들게 될줄이야. 《우리 아들은 이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마치 인민이 자기를 위해 지는 시같다나. 평양제1중학교에 입학한 날에도 그렇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한 날에도 또 평범한 로동자인 이 아버지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호화주택의 주인이 되던 날에도 자라는 이 시를 읊었다합니다. 정말이지 로동자

한편의 시에 담아보는 생각

들이 궁지와 영예를 상징하는 좋은 시입니다.》 로동자들의 궁지와 영예를 상징하는 시! 결코 무시할 들을수 없는 말이었다. 로동에 대한 행복과 영예가 있고 로동자의 궁지와 자랑이 맥떡히 놓이는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비록 시가 창작된 때로부터 수십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에 와서도 우리 사회에서 로동자는 최상의 영예와 최고의 행복을 상징하는 부름으로 되고있다. 시에서도 절절히 토로하였지만 내 나라는 로동계급의 세상, 로동자란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궁지높은 이름으로 되고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뭉가까이 불러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머니조국을 위해 성실하게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이 찬만큼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시면서 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야말로 진정한 로동자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고 그들을 친히 연회에 불러주시신 사실이. 어찌 그뿐인가. 송화거리에 이어 경치좋은 보통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세상에 없는 호화주택을 평범한 로동자들에게 안겨주시고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랴. 로동자란 부름이 이렇듯 최고의 행복과 궁지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불려오는 나라가 이 행성 그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자라고 로동자는 수난과 멸시, 가난과 수치의 상징으로

되어왔다. 부유한자들의 향락과 쾌락을 만끽시키는 도주로, 아무리 뼈빠지게 일하고있해도 벗어날수 없는 불행고통으로 타락과 절망에 허덕이는 가슴 아픈 현실은 지나간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저 남조선에서도 로동자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불우하기 그지없다. 로동자들을 깨,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는 통치배들과 재벌들을 저주하고 단죄하며 터치는 로동자들의 피터지는 절규가 하늘땅에 차넘치고 생존권을 요구하여 벌리는 시위가 그칠새 없다. 너무도 살기가 힘들어 고공에서, 거리에서, 현장에서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며 투쟁을 하지만 이들의 울분과 아픔을 그 누구도 돌리려고도, 가세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로동자에서 자기 집을 평생 가질수 없고 로동자에서 자식들의 운명을 지켜줄수 없고 로동자에서 생의 마지막에서 해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야만 하는 곳이 바로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보라. 로동자에서 제일 훌륭하고 좋은 집을 무상으로 받고 세상에 없는 복과 락을 누리며 최상의 영예를 지니고 부럼없이 살고있다. 로동자들의 자식들의 운명도 로동자들의 관이한 운명처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있다. 로동이 천시되는 사회에서 로동자의 자식들은 마들림과 멸시, 모욕과 우롱의 대상이 된다면 로동이 존중되는 우리 사회에서 로동자의 자식들은 모두의 존중의 대상이 되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박사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인민배우가 되는 그런 인간존엄의 높은 연단에서 나는 자랑했으랴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불러볼수록 로동계급의 궁지와 영예가 하늘에 닿는 내 나라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김혜정

윤평선